

기관돋보기 | 정보나의집

서비스 아닌 '생활'로, 장애인 아닌 '가족'으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정보나의집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아닌 생활로, 봉사자가 아닌 이웃으로 장애인인 아닌 가족으로서 생활 중심의 삶을 가꾸어나가며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보살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정보나의집.

특히 장애인의 개개인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11 맞춤형 개별지원사업으로 직업체험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평가 항목에서 모두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도내 장애인복지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정보나의집(원장 이애경)은 올해 설립 33주년을 맞이하였고, 32명의 이용자들이 지내고 있는 중증장애인가족주거시설이다.

이용자들 모두 오랜기간을 함께하여 동료이자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입주한 이용자들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현재는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회갑을 맞이한 이용자들도 있다.

정보나의집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암리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암리는 고령사회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독거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마을중의 하나이다.

시설의 건축 초기부터 내암리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시설을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한울타리'라는 사업으로 발전했다.

'한울타리' 사업은 이용자와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하며 영화관람과 식사 등으로 서로의 정담을 나누는 시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정보나의집 전경.

지역주민과의 교류 통한 장애인식 개선프로그램 '한울타리' 장애인 개개인의 관심사 파악 위한 1:1 맞춤형 개별지원사업

을 가질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다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방역 지침과 격리의무가 시행되면서 시설 방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는 격리의무가 완화되어 어르신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시설방문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한울타리사업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됐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며, 주로 힘들어하시는 관절염·근육통을

완화할 수 있는 의약품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개개인 관심사 파악을 위한 1:1 맞춤형 '개별지원' 사업으로 중심을 이뤄, 기존 외부활동과 시설내에서 감사에 의해 그룹형으로 진행했던 카페, 마트, 미용실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별활동으로 전환했다.

이제는 이용자들이 1:1 개별활동에 익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친한 지인들과의 동행을 원한다면 이용자의 견해를 수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지원'사업을 위해서 당사자를 비롯한 지원교사들과 함께 매년 초 회의를 진행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파악해 활동내용의 필요한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보완 및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자기진작 및 동기 부여를 위해 개별활동을 이행한 직원에게는 포상도 주어진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이 올해는 조금 완화되어 개별지원활동이 활기를 띄게 됐다.

또한, 이용자들 중 자립이 가능하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본원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정보나의집 '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체험에는 4명의 이용자들이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으며, 먹거리를 수령배하는 곳에도, 목공방에 가기도, 향수만들기와 미술활동도 하며 다양한 직업체험·여가활동 등으로 매일매일 바쁘게 곳곳을 찾아다닌다.

임윤옥 사무국장은 "정보나의 집은 미소가 떠나지 않는 곳이지만 장애인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모든 직원들의 애환도 애뜻하게 느껴진다"며 "제도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조리원 등의 추가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애경 원장은 "공동체 생활안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 생활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보나의집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이용자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공간, 모든 활동에 대한 선택과 자기결정권이다. 그러므로 개별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들을 위해 적극 힘쓸 예정이다.



정보나의집은 회갑을 맞이한 이용자와 함께 파티를 진행했다.



충청북도와 청주의료원은 지난 4일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장애 아동 '골든타임' 성장기 재활치료 제공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최적화 서비스 제공

충청북도와 청주의료원은 4일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및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보건복지부 송준현 장애인정책국장 등 주요 인사와 의료계, 장애아동 가족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전국 첫 개원을 축하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아동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최적화된 재활치료 프로그램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충북을 포함하여 전국 총 10개소(병원 2개소, 센터 8개소)가 선정 및 건립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충북이 전국 첫 개원이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청주의료원 입구 우측 부지에 연면적 1,815.0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10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주요 시

설로는 낮병동, 수치료실, 로봇치료실, 언어·작업치료실, 병원학교 등이 있다.

센터에서는 초기 장애 진단 시 부모 교육, 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등 장애 아동의 생애주기별 사례관리와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어린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개원식에 참석한 장애아동의 한 부모는 "아동 재활치료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적기 치료, 아동 신체에 맞는 장비, 교육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예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북지역에 아동 전문 재활병원이 개원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장애 아동의 부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힘든 점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양육 친화 환경을 잘 조성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지원

내년 3월까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종합대책 추진

충청북도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내년 3월 15일까지 집중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겨울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취약아동 및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에 대한 위기상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 총 44종의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한다.

이렇게 발굴된 취약·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

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파대비 난방·건강관리 지원 및 시설 안전점검,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나눔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이세종 보건복지국장은 "어려운 매일이 이웃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시군 복지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길 것을 도민들께 부탁드립니다"라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 255-0504, 253-0504 FAX: (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 청주대점 / 충북대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개장 준비 '척척'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밀착형 체육기반 시설

음성군은 내년 1월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정식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기반 확대를 위해 236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다목적실 등을 갖췄으며, 정식 개장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수영장은 25m 규모의 7레인으



음성군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전경.

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개 레인은 장애인 전용이다.

수영장 신규 회원은 이번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주민과 장애인을 우선 접수하였고 다른 지역 주민은 23일부터 30일까지 등

록을 진행한다. 체육관과 다목적실은 개장 이후 프로그램을 구성해 회원을 모집한다.

군은 정식 개관에 앞서, 최종 시설 점검을 마쳤다. 현재 시범 운

영 중으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회 4000원, 월 사용료는 자유 수영 5만원, 강습 6만원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등은 50% 할인이 적용된다.

청주시,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환경 체계 구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도 포괄적 추진

5일 시에 따르면 이법석 청주시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환경 체계 구축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청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곧 사회복지서비스 품

질 만족으로 이어지기에 사회복지 종사자 중 누구나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사

회에 대응해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노인 일자리 통합정보체계의 획기적인 구축을 통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장애인 여성 등 누구나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청주여울센터

개소, 주거복지센터 확장 이전 등 세심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법석 청주시장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적절한 인건비 보장과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일터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를 신설하고 기존복지 강화하는 등 양과 질적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현 진천군의회(왼쪽 네 번째) 송기섭 진천군수(오른쪽 네 번째) 등이 4일 충북 진천군청 현관 앞에서 '편안콜' 차량을 공개하고 있다.

진천군, 거동이 불편하신 분 '편안콜' 이용하세요

운행 시간 '365일, 24시간' 대폭 확대, 2대 증차 총10대 지원

진천군은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회장 최규화)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명칭이 '편안콜'로 선정됨에 따라 새롭게 시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개조한 차량

을 말하며 특별한 명명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간 군은 진천군 및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운행 지역을 '충북 전 지역, 인접 시군(경기도 안성시, 충남 천안시), 서울시로 확장'해 운영했다.

또 운행 시간을 '365일, 24시

간'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편안콜 차량 2대 추가 증차를 통해 총

10대의 차량을 지원하는 등 더 나은 이용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명칭에 주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군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 활성화의 하나로 더욱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운 새 이름 선정을 추진하게 됐고 주민 참여 투표를 통해 '편안콜'을 최종으로 선정하게 됐다.

'편안콜'에는 언제나 이용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친절과 봉사'에 대한 진천군의 가치와 비전을 담았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편안콜을 브랜드화해 진천형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 확립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편안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33-0220 또는 ☎043-533-57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충주시, 재가 의료급여 맞춤형서비스 지원

퇴원 후 2년간 의료·돌봄·식사 등 제공



충주시가 충주시니어클럽과 재가 의료급여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주시가 '재가 의료급여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시는 최근 충주시노인전문병원, 큰사랑돌봄센터, 충주시니어클럽 등 지역 의료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대상자의 필요 욕구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위해 여러 분야의 복지서비스 기관과 유기적인 협

조체제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기관, 복지 관련기관과 재가 의료

여 수급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 2년 동안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충주시는 협력기관 및 복지서비스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입원 필요성이 낮고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 의료급여관리사와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케어팀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사회 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해 퇴원 후 서비스 지원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큰사랑돌봄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2월에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충주시니어클럽 노랑도시락사업단은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질의 밑반찬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

'고려인 이주 정착지원 시스템'

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지역 주도의 우수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13건(광역 2건, 기초단체 1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천시는 정부의 외국인, 동포



행정안전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제천시 미래정책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정책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고려인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고려인의 고국 방문과 지역 내 생활인구 확보, 생산노동력 부족 해결 등 일석삼조의 이주 정착 지원 시스템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

었다. '고려인 이주 정착지원 시스템'은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재외동포지원센터, 체육특례, 단기체류시설, 정착교육, 취업·주거연계, 의료·보육지원, 변호사 상담과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단양군, 충북 도내 자살률 최저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 추진

단양군이 2022년 자살 사망자가 충북도내에서 제일 적은 지역으로 밝혀져 명실상부 '건강한 단양'을 실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14.3명으로 도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 충북도내 시·군의 자살률 추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에서는 또 우리나라

의 2022년 자살 사망자는 1만 2906명이며,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치라고 발표했다.

충북의 자살 사망자는 461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9명이며 단양군의 14.3명은 현저히 낮은 수치로 드러났다.

군은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높은 자살률을 보였지만 단양군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

심으로 지속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도내 최초로 각 읍면 이장과 함께 안전하게 농약을 관리하는 '농약 보관함 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에서 자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 농약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했다.

천여명의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고 생명사랑 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웃간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관내 학교를 찾아가 지역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을 주제로 뮤지컬 공연을 펼쳐 정신 건강 증진에 힘썼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리얼,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유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신체 위생용품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여성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정용 살충제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괴산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4년 연속 선정, 취약계층에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지원

괴산군은 취약계층에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국비 2억5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계층 간 영양 불균형 완화와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했으며, 괴산군은 충청

북도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괴산군은 오는 2024년 3~8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바우처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수혜자의 경우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를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군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구입가능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유유, 계란, 육류, 잡

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 채소류, 산양유 등이며, 지역 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GS25편의점, 온라인 농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사업에 선정돼 고령리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안전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1억원 확보... 학습·취업프로그램·휴게실 공간 조성



괴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경.

괴산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를 그

만두었지만, 학업을 계속하거나,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관련 활동을 하고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사업 공모

를 진행했으며, 괴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유현)를 포함한 전국 5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선정됐다.

괴산군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학습공간, 취업프로

그램 활동공간, 휴게실로 37가지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하기 위해 내년 4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뒤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진입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교육지원 및 멘토링, 취업 및 자립지원, 특성화 및 문화체험지원, 건강검진 등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괴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43-834-7945)로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2023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

목표 대비 155% 달성, 인센티브 5000만원 획득

보은군은 지난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시군 평가는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근로환경, 일자리 시책 추진 등의 항목을 도내 시군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며, 사회 전반에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북도 특수시책

이다.

올해 군은 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 취업지원센터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146건) 대비 155% 달성, 취업 알선 추진 목표(60명) 대비 101% 달성, 유관기관 7개소와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군내 5곳의 기업이 참여하는 등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쓴 것이 타 시군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보은군은 지난 5일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내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백세시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지속

적인 관심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우수 및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4년 만에 다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증평군, 행복돌봄 나눔터 개소, 돌봄공백 최소화

미루나무숲 작은도서관 내 3번째 행복돌봄 나눔터 개소



증평형 돌봄나눔터인 '행복돌봄 나눔터'가 지난 13일 증평읍 송산 대광로제비암 아파트 내 미루나무숲 작은도서관에 문을 열었다.

증평형 돌봄나눔터인 '행복돌봄 나눔터'가 지난 13일 증평읍 송산 대광로제비암 아파트 내 미루나무숲 작은도서관에 문을 열었다.

이번 미루나무숲 작은도서관 행복

돌봄 나눔터는 인구밀집 지역인 신도심(송산·미암지구)에 조성됐다.

지난 10월 개소한 증평군청 행복돌봄나눔터와 지난 12월 6일 개소한 송산휴먼시아 1단지 작은도서관 행

복돌봄나눔터에 이어 3번째다.

군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추가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행복돌봄나눔터 간 상호 교류와 효율적 관리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증평군 행복돌봄 나눔터는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과 마을 공동시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돌봄공간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재영 군수는 “초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 및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평군은 꾸준한 출생아 증가 및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희망의 도시”라며, “지역 맞춤형 돌봄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가 걱정 없는 빈틈없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획득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모범적 운영

옥천군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되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

의결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을 선정한다.

옥천군은 지난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최초 인증을 받았고, 2020년 1차 재인증에 이어 2회 연속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인증은 3년간 유효하여 2026년까지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유지하여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정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 문화 인창에 힘쓰고 있으며, 공직자 및 가족 건강검진지원, 가족휴양시설 운영, 동호회 활동지원 등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계기로 일과 가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 가족친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적십자 희망성금 100만원 전달

긴급재난구호·지역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영동군은 '2023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봉사원대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영동군이 적십자사회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영동군은 지난 9일 영동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3년 대한적십자

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봉사원대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게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적십자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에서도 희망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희망성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회비 모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해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박현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영철 군수는 “오늘 전달하는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회비 집중모금은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액은 긴급재난구호와 지역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민간복지안정망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익)는 지난 8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이명수 의원(2022.6.15.)과 강훈식 의원(2022.12.7.)이 대표발의 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운 의원(국민의

힘 간사)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28개 지자체 중 166개 시군구 지역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 있으나 법 시행 후에는 남은 62개 시군구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익 회장은 "민간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민간자원을 통해 민간복지안정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 강기운 간사님, 고영인 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메타버스 꿈드림센터 개소

학교 밖 청소년 취업·교육 돕는 비대면 공간 마련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상공간(메타버스)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타버스

꿈드림센터는 네이버 제(ZEP) 공간(플랫폼)에서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우수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7개 시·도별 서비스 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보, 기초소양교육 등 유용한 콘텐츠와 전국 단위 교육, 행사,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17개 시·도별 서비스 맵에서는 상담, 교육, 자기계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동아리실, 행사장 등의 공간을 구성해 꿈드림센터의 비대면 서비스

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도별 프로그램, 교육, 행사, 동아리 활동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메타버스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메타버스 꿈드림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준비 등의 학습 지원과 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 등의 취업 지원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14만7000개 확대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온·오프라인 모집

모집대상
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모집분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지역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형기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2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수형기관별 집중모집 운영기간을 확인하세요

상담 및 문의 ☎ 1544-3388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에 2만5000명에서 2017년에는 47만명, 그리고 올해는 88만 3000명이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4만7000개 많은 103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예산도 2004년 212억원에서 2017년 5231억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은 올해 1조 5400억원에서 국비기준으로 2조 262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이번엔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다만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형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형기관에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한다.

보건복지부,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장기요양기관에 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

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만1608 개소 장기요양기관(23.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질환 중증도·호전 가능성에 따라 개선

호전 가능성	의학적 평가 결과 (단계)	유효기간		
		현행	개선	
고착	1	2년	3년	1년 연장
	2~4	3년	5년	2년 연장
비고착	2~4	2년	4년	2년 연장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개선.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달부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장기간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의 평가 유효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다.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나 수급권자 중 질병과 부상, 또

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받는 것이다.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국민연금공단 상담 평가에서 활동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돼 유효기간 내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와 1종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을 전제로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

개정 고시 시행 전까지 수급자들은 의학적 평가에 따라 1~3년마다 이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속 3회 '근로능력 없음' 평가를 받으면 다음 평가까지의 유효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다.

의학적 평가가 2~4단계로 나온 중증질환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고, 1단계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작아 '고착'상태로 판정됐다면 1년이 연장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비고착' 1단계 질환자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준 기초수급자 약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가며, 2023년 등유비우체,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라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

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되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2024년 6월 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우체국 동행 카드' 출시, 월 5만원 한도 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비용 지원을 위한 '우체국 동행 카드'를 출시했다"면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우리카드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로 교통비 지원이 확대 시행됐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20%, 온라인쇼핑 15%, 배달앱 15%, 커피전문점 5%, 생활잡화 스토어 5%, 우체국(우편요금, 우체국소평, EMS) 5% 등 각각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원사업 대상자는 장애로 근로능력

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약 1만5000명(2023년 기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1519), 온라인 홈페이지(hub.kead.or.kr)를 통해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자격조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우체국 창구에서 '우체국 동행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 사회복지 활성화 기반 마련 최선”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6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 및 '2023년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우수 자원봉사 시상식

김영석 회장 “나누는 삶 보여준 봉사자에 감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지난 6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 및 '2023년 우수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1부 포럼에서는, 1999년부터 개최한 '충북사회복지포럼' 100회를 맞이하여, '충북사회복지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김영석 회장이 발표를 진행...

행하고,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교수(지역복지 분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김준환 관장(노인복지 분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장애인 분야)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시상식은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하여,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 우수 자원봉사자(단체) 20명에게 표창 시상 및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현판 증정식을 진행했다.

특히, 사회복지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TV조선에서 공동 주관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응원 릴레이 영상 콘테스트'에서 도내 관리센터 3개소가 입상하여 이날 상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영석 회장은 “제100회까지 충북사회복지포럼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아준 다수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덕분”이라며, “앞으로 도내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올 한 해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의 실천을 보여준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지역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자의날 기념 2023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통령표창 2명을 비롯한 7명이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청주시 자원봉사자 대통령 표창 '영예'

우재분·이희일님 수상 국무총리상 등 7명 공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천식)는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자의날 기념 2023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통령표창 2명을 비롯한 7명이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의 기념식에서 우재분 씨(76세, 용암1동)와 이희일 씨(64세, 내수읍)가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충북지방병무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학래 봉사자

(54세)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에도 이관일 봉사자(51세, 내수읍)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나누미봉사단, 사천자율방범대, 청주사랑나눔봉사단 등 개인 1명과 3단체가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우재분 씨는 용암1동자원봉사대 대장으로 1975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밀반찬지원, 무료급식 제공, 환경정화활동, 사랑의 밥차 운영, 경로당 청소, 가래떡 나눔, 김장 나눔 활동, 재난복구활동 등 48년간 자원봉사활동에 몸담아 왔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이희일 씨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원지구협의회 회장으로서 장애인 및 독거노인, 노인요양시설, 결혼

가정을 위한 돌봄 활동과 지역 행사 지원 등 27년간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천식 센터장은 “오랜 기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로 청주시 자원봉사자의 위상을 높여준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봉사자들 덕분에 두 명의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한 해 7명의 정부표창 대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공헌한 봉사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자원봉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이장희 후보 당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총력

제13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준환)를 이끌어갈 새 수장에 이장희 후보가 선출됐다. 지난 6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총 1185명의 선거권자 중 747명(63.04%)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장희 후보가 389표(52.08%)득표로 제13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장희 당선인은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쳐 청주복지재단 이사, 글로벌투게더 이사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 강동대학교 교수 이장희 후보자가 당선됐다.

장, 강동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학

계 이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통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체계도 향상을 중요시하는 협회로

서 공약을 실현하기로 약속했다.

자세한 공약내용으로는 시군지회 활성화와 도모 및 현장과의 소통강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장유치, 협회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 운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재정자립기반 마련, 권역별 회원 복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 인권보장을 위한 전문가 위촉 등을 공약했다.

임기는 3년이며 2024년 3월부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장희 당선인은 “공약에서 밝힌 것과 같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회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충북모금회,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

내년 1월까지 95억여원 목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 사랑의온도탑이 청주 상당공원에 설치됐다.

충북모금회는 지난 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김병국 청주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온도탑 100도 달성을 함께 기원했다.

올해는 특히 나눔리더가족

500만원 성금전달식이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22년 나눔리더가족에 가입했던 이재영씨 가족의 두 번째 단체성금전달로 세 아들이 용돈을 모아 각각 100만원씩 기부했고 올해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맡은 이재영 위원과 부인인 김현주 교수도 자녀들과 뜻을 모아 나눔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충북을 가치있게! 라는 슬로건인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의 모금목표액은

95억5000만원으로 9550만원이 모아질 때 마다 상당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충북모금회 홈페이지(http://cb.chest.or.kr)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북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방송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기부참여를 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나눔온도가 100도에 도달해 희망을 퍼뜨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 후원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희망나눔

도내 11개 시설에 감사패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숙)는 지난 16일 청주시 충청북도C&V센터에서 '2023년 후원자

와 함께하는 따뜻한 희망나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가 후원하고 충북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충청북도 내 11개 아동복지

시설의 후원자 및 종사자와 아동 100여명을 비롯하여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박수경 팀장, 충북아동복지위원회 이태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설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충북아동복지협회 권현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동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실천하시는 후원자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아동들에게는 이웃의 감사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6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제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였다.

충북사회복지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제100회 '충북사회복지포럼' 펼쳐 지역사회 · 노인 · 장애인 3가지 복지분야로 열띤 토론 진행

이날 포럼에서는 1999년부터 개최한 '충북사회복지포럼' 100회를 맞이하여 지난 24년 간 충북사회복지포럼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연도별 사회복지 이슈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충북사회복지의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김영석 회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 토대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교수는 현재까지 진행된 충북사회복지포럼을 분석하고 충북의 지역사회복지 배경을 파악하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 ▲사회적 돌봄 체계의 재정립 ▲인생을 위협하는 위험과 일상의 대응에 대한 논의 등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토론을 이어가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나타난 충북의 지역사회복지 배경

■인구구조의 변화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 인구가 2015년 158만 3952명에서 2021년 159만7427명으로 0.8% 증가한 데 비해 세대 수는 2015년 60만1856가구에서 2021년 69만5611가구로 15.6% 증가하여 인구수보다 세대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과학기술의 활용

지역 문제 해결이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사회환경으로서 IoT, AI 등 과학기술의 활용을 고려

해야 한다. 관련 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과정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돌봄, 교육, 문화, 생활 안전 등 일상과 관련된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계 · 협력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 수립부터 문제 해결 과정까지 지역주민과 여러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플랫폼 품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 관계 기관 · 지자체가 제기한 사안의 심각성 · 시급성을 기준으로 충북도가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지자체와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서비스의 양적 성장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인증제 도입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북의 경우 2022년 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충북사회복지포럼 분석

100회를 맞은 충북사회복지포럼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회 정도 지역사회복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앞서 환경변화에서 다른 영역의 발제가 많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역사회복지를 해석한다면 100회 동안 다루어진 주제가 대부분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100회 포럼 중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주제를 분류해 보면 아동, 청소년, 일자리, 치매, 사회복지관, 다문



화 등 대상별 주제가 7건,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제 2건, 사회복지기관 운영 관련 주제 3건, 충북의 복지수준 및 도민들의 조사 등이 3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8년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복지 의제를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운동적 성격의 주제도 찾아볼 수 있다.

포럼의 형식은 토론회 뿐 아니라 특강, 가이드 발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와 시의성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홍보성 강연이 이루어지거나 다소 실무교육 형태의 주

제들이 다루어진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패널이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포럼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선정과 발제자 선정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사회복지포럼을 통해 제시된 주제로 인해 지역사회 변화를 얼마나 도모했는지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충북의 사회복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100회 포럼을 통해 이러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포럼 실시 이후의 지역사회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사회복지 부문

재난·위기대응 지원체계 논의 필요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진 교수는 “코로나 등으로 사회적 안전이 무너져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해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생존의 방식,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야 하기에 이와 관련한 주제들이 충북사회복지포럼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 환경과 관련한 복지의 논의 등 몇가지를 제언했다.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았을 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고소득층 가구 소득은 크게 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개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 및 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둘째,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기관 휴관에 따른 대응이 적절치 못했던 것을 토대로 공백 발생시 대응법과 지역사회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돌봄사업은 돌봄대상자 뿐 아니라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돌봄 가족의 소진 및 과로예방 등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과 논의를 통해 지역주도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 “구체적으로 재난 및 위기대응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재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강화 방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사회복지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인복지 부문

노인취업기회 확대·평생교육체계 구축



김준환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장

김준환 관장은 “노인복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논문 주제와 연구방법을 분석하고 노인복지의 전망에 대해 살펴 보았다”며, “먼저 1980년 한국노년학 창간 이래 2023년 현재까지 한국노년학에 실린 복지 분야의 논문들을 분석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한국노년학에서 복지분야 연구가 담당할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고자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출간된 복지 분야의 논문 215편, 2008년-2017년 논문 273편, 218년-2023년 243편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환경 및 프로그램이 개발 · 확대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평생교육체계구축에 기초하여 교육 · 여가 · 취업 · 소득보장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체계(Community Care)를 구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양질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와함께, “이러한 정책적 과제들이 실현될 때 노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노인 개개인이도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 부문

예산투입 적어 최하위... 구체적 해결 해야



윤상용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윤상용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결국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 대상 인구가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협소하고, 장애인정책 프로그램 수 부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몇가지 제시했다. 윤 교수는 “장애인정책 대상 인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소득, 고용,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별로 욕구를 갖고있는 시민을 선별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 마련을 위해 현행의 판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외 노인, 임산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지원제도 및 고용서비스 등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책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비등록장애인(비등록정신질환자 등)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 영역 내에서 장애인정책의 조화를 고려하여 OECD의 평균 사회지출 대비 장애인정책 지출의 비중을 달성하는 것을 한국 장애인정책 제정의 단기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2017년 기준 OECD는 평균적으로 전체 사회지출의 10.8%를 장애인정책에 지출하고 있어 (2.25%/20,783%), 최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12.287%(2019년 기준)의 10.8%인 1.33%를 단기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제공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공공부조방식의 보호자수당(돌봄수당) 도입 적극 검토,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체계적 · 구조적으로 겪는 사회적불리에 대한 사후적 보상 등 해결책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광장

나에게 자원봉사란...



이 희 일
자원봉사자

좋은 기회로 칼럼을 쓰게 되어 평범한 사람의 봉사 인생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한다. 시골 마을에서 장녀로 태어나 농사일로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나 자신보다는 가족,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았다. 그것이 즐겁고 보람 있었다. 이때부터였을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봉사와 헌신이라는 글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내 삶은 그때 그 시절 다른 여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평범했다. 그러던 중 1995년 봉사에 관심 있던 지역 소재 약 25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봉

사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대한적십자사 청원 지구협의회'를 결성하고 단순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까지도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때부터 나의 제대로 된 봉사활동 인생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봉사와는 차원이 달랐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절실한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지역의 소외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랐다. 남을 돕는 것이 좋았고 보람찼던 이전과는 달리 책임감과 사명감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려 불타오르며 이 길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느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내 체력이 모자라도 낫았으므로 뛰어다녔다. 봉사는 자제가 행복했고 대한적십자사도 모자라 2001년 9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도 봉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가 이제는 전보다 범위가 더 늘어난 지역행사, 지자체행사, 재난재해 등 다양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봉사인으로서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도 많았다. 이전 평소 내가 하던 직접 내 몸을 쓰는 일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하기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람은 배가 되어 돌아왔다. 자식들에게도 "베플면 돌아온다", "남을 돕는 것이 행복이다" 등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해왔다. 어쩌면 많이 서운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봉사활동을 다니며 엄마라는 자리가 비었을 때도 자식들은 그 흔한 불만 한 번 표현하지 않았다. 나중에 물어보니 봉사라는 건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을 만큼 봉사하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착하다 착한 아이들은 벌써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활동도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몸도 많이 아팠다. 그럼에도 남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한 번이라도 더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녔고 그러다 보니 건강은 더 약화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새부터 머릿속을 맴돌았다. 물론 마음도 지칠대로 지쳤었다. 그런데 문득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하는 이 봉사활동이 누가 강요했는가? 절대 아니었다. 그렇다면 봉사정신이 무엇인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

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려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이다. 이것은 곧 나를 말하며 내가 이제까지 믿고 걸어왔던 길 그 자체였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나 하나만의 힘이라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을 되잡았다. 경력이 쌓이며 인정받게 되었고 직함도 늘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2023년 12월 5일 전국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그런데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이제야 빛을 보네"라는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다. 대통령 표창은 27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보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대통령 표창을 받기 위해 몰심양면으로 도와준 가족들과 지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의 나는 없었고 그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언제나 늘 그랬듯 앞으로도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에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어디든 달려갈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손길이 닿기를 희망한다.

건강칼럼

새로운 변화의 시작, 혹시 적응장애를 아시나요?



박 선 홍

청주의료원 1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계획과 결심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계획이나 결심을 고민 하는 때가 찾아온다. 그 이유는 새로운 학교, 직장 등 환경적인 변화를 많이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나름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거나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우울하거나 불안해지고 평소와 다른 충동적인 행동(무단결석, 기물파손, 폭력 등)을 보이는 등 부적응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몸 컨디션도 저조해지고 원래 잘 하던 것들도 하기 어렵게 되거나 대인관계가 꼬이는 것만 같은 생각들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라면서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가 온 것이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적응장애'라고 하며, 경제적 어려움, 신체 질환, 또는 대인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후에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적응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적응장애의 증상은 보통 스트레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스트레스가 사라진 후 6개월 이내에 증상도 소실된다.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2~8%로 추정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지만, 소아·청소년의 남녀 유병률은 같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서 가장 흔히 진단되고, 독신 여성이 가장 적응장애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학 혹은 전학, 결혼, 이혼, 출산, 사별, 취직, 퇴직,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질병 등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또, 자연 재해, 종교적 박해 등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나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은 3개월 내 이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된다. 간혹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자칫하면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중증 정신 질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참기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며 경과를 볼 것을 권유 드린다. 또,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성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종 검사에서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을 조절하거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상담치료와 보조적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치료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힘든 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남들은 다 그냥 하는데 나만 바보같이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지만 그들도 드러내지 않을 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과 생각은 물론이고, 무엇이 어려운지 쉬운지도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뛰어난 육상선수'가 요리를 잘할 거다'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청주의료원 의료비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의료비 지원제도(에코프로, SK텔레콤 한음)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와 관심을 바라며, 청주의료원 위·수탁 연계사업으로,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혼자만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건 어떨까?

현장의 목소리

사회복지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김 은 지

청주시가족센터 사회복지사

21년 2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현장에 바로 취업하여 어느덧 3년차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매년 초, 반기, 분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 사례관리를 종결하는 시점 등 회사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퇴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사회복지자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된다. 함께 졸업한 동기, 선배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묻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사회복지 할 거야?' 내지는 '사회복지 계속할 거야?' 이 질문에 누구에게도 명확하게 계속하고 싶다고 답변하지 않았

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급여' 때문이다. 연차가 낮은, 사회초년생 사회복지사는 대다수 장려 수당이 없다면 주휴 시간을 포함한 최저시급과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가끔 우리는 농담으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할 때랑 월급이 비슷하다' 라는 말을 하고 웃곤 한다.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에게 그렇다면 그럼에도 사회복지현장에 남고 싶고, 아직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첫째는 '보람'이다. 처음 만났을 때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며, 힘들어하던 당사자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응원하는 사회복지사가 생겼다는 이유로 지지를 얻는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 고민한다. 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함께할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과, 팀에는 20대 직원이 많은 편인데, 사회초년생인 서로의 고충을 잘 이해하다 보니 실수할 때 풀어주고, 서로 칭찬하며 지지한다. 필자는 올해 2월 당사자의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받아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 때 동료들의 위로와 응원이

없었다면 당사자를 만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경계심이 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연말은 모든 사회복지사가 그러하듯 야근이 제일 많은 달인데 평가 준비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게 될 때 먼저 퇴근하는 사람은 쟁겨놓았던 간식을 주기도 하고, 어떤 동료는 혼자 건물에 남아있는 건 위험하다며 함께 남아주기도 한다.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에서 서로 위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고, 이 환경에서 계속 남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강한 원동력이 된다. 세 번째는 '전문성'이다. 대학생일 때 교수님들께서는 사회복지현장은 사회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기에 계속해서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영역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내가 만나는 당사자가 다 같은 삶을 살지 않기에, 실전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상담 기법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제도, 취업지원제도의 변화 등 공공부조제도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의 선배님들을 보면 이러한 지식과 경험에서 발휘되는 나만의 현장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당사자에 대해 고민이 될 때 선배님

들은 항상 나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경험을 나눠준다. 그들이 지난 시간 쌓아온 전문성을 보면 존경심이 들기도 하고, 나 또한 일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거듭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이유 말고도 안정성, 여러 업무를 수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그 안에서 느끼는 재미 등 사회복지현장에 남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 많다. 사회복지에 애정을 가지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다 보면, 언젠가는 나 또한 선배님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치열한 20대를 보내고 있는 동료 사회복지사를 응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필자가 좋아하는 노래인 윤도현(YB)의 흰수염고래 중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는 혼자 자기가 아니라 노랫말이 있다. '사회복지라는 길을 걸어가며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을 것이다. 당사자의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행복도 위해줄기 바란다. 눈을 돌려보면 당신을 응원하는 가족, 친구, 동료가 있다. 혼자서 공공 알지 말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을 통해, 스스로가 우선인 마음이 건강한 사회복지사로 계속해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똑똑똑! 법률상담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재차 제기한 이혼을 인용한 사건에 관하여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인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거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하고, 쌍방간 별거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과거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가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른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밝힌 혼인계속의사가 오히려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참조). 원심에서는 원고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유책성을 감안하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인정되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기도 곤란하다고 하면서, 피고의 혼인계속의사 표현은 혼인의 실제가 상실된 현재 상태를 수긍하면서도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법률혼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체계가 파탄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는 틀 내에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판단의 기본 틀 내에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 · 스마일봉사단 · 보배봉사단, 사랑의 김장 나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식) 소속 나우리회 · 스마일봉사단 · 보배봉사단은 지난달 2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구 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및 전달식을 진행하여, 청

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 지현상)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장애인 75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각 봉사단은 "우리가 직접 담긴 김치가 누군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행복을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치를 전달 받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나우리회, 스마일봉사단, 보배봉사단은 각 2010년, 2014년, 2020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었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실천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꿈

함께 키우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꿈을 지키는 건 법조계의 내일을 키우는 것

희망이 쌓일수록 꿈은 더 든든해집니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3. 12. 12. (화) 09:00 ~ '24. 1. 9. (화) 18:00

2024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 안내

-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
-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국고 및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지원 (7초 ~ 3구간 이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른 차등지원)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신청
-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한 경우 신청완료
-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홈페이지) 및 원광대신청(교내)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원 신청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 (신청일정) '23. 12. 12.(화) 09:00 ~ '24. 1. 9.(화)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3. 12. 12.(화) 09:00 ~ '24. 1. 16.(화) 18:00

신청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신입/재학생)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1599-2000)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 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는 자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에 추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기준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대상 확대 (안 제29조제3항9호, 별표8의3 나목 및 너목)

1) 현행 규정상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 및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

는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함

2) 이에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는 자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추가(안 제29조제3항제9호 및 별표 8의3 제1호 너목)

3) 또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에게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함(별표8의3 제1호 나목)

나. 농어촌 등 지역 아동비용 특례적용 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준 마련 (안 제40조제2항제3호)

1)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에 따라 교사대아동 비율을 초과하여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보육교직원

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함(현재는 지침으로 규정)

2) 이에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 수를 달리 적용하여 추가 발생한 수입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력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234-0840~2)
-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이랜드복지재단, SOS위고(WEGO)사업/주거, 생계, 치료, 자립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 가정
- 지원기준: 지원의 사각지대, 위기상황, 경제상황, 삶의 변화 및 문제해결 가능성
- 신청기간: 상시접수
- 발표기간: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 지원내용: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자립비
- 신청방법: 홈페이지(everybranch.co.kr) 내 기관 신청 본인신청불가,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문의: T. 02-2644-0110 / 070-4241-9629

[월경어린이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공모]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만15세 이하 초·중학생 및 영유아
- 지원내용: 지원 아동의 질병 치료에 요구되는 일체의 의료 비용 제외: 치료치료, 발달재활치료(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 지원금액: 개인 최대 200만원
- 신청자격: 선정 아동의 사례 관리가 가능한 아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5440421@hanmail.net)
-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발표: 접수 후 4주 이내 선정 여부 발표
- 문의: 02-437-2219

자원 봉사자 모집

▶ 초등학생 학습지도 및 말벗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855-1090

▶ 시각장애인용 점자, 전자도서 제작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237-5544

▶ 아동학습·놀이지도
관리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836-7912

▶ 이용자 이모임 봉사
관리센터: 대소섬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881-8890

▶ 요양원 시설봉사 및 생활지원
관리센터: 로템나무요양원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857-1101

▶ 어르신 생활지원 자원봉사
관리센터: 청주간호전문요양원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266-0825

▶ 시설 청소 및 회원 말동무
관리센터: 해피하우스다솜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856-400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복/지/만/평

열등처우

이창신 www.bokmani.com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입니다.